



Max News

2024년 4월 LAX ORD 화물기 차터운항

LAX 4월 8일/15일/22일/29일 OZ282 0850/0410 (74F) 매주 토요일 17시 컷오프
ORD 4월 1일/8일/15일/22일/29일 OZ244 2300/0000+1 (74F) 매주 월요일 17시 컷오프

Contact us

- 영업팀 메일: E) sales.kr@maxlogis.com
- 김민호 이사: E) mike.kim@maxlogis.com H) 010-2988-6309 T) 070-5096-9367
- 장명수 차장: E) simon.jang@maxlogis.com H) 010-4437-5175 T) 070-5096-9387
- 김희명 차장: E) hmkim@maxlogis.com H) 010-9281 0109 T) 070-5096-9389
- 오아정 과장: E) jenny.oh@maxlogis.com H) 010-7123-7239 T) 070-5096-9442
- 김현미 대리: E) sienna.kim@maxlogis.com H) 010-9924-2772 T) 070-5096-9124

서울

노선별 안내

미주 (BSA/LUZ/GCR) 및 중남미

미주 LAX/ORD/JFK 및 주요 노선 지역(ATL/DFW) BUP 프로그램을 진행

OZ 스케줄 중심으로 한 지속 가능한 BUP 작업 및 안정적인 Allocations 기반한 스페이스 제공

OAL 직항을 포함한 다양한 T/S OAL SVC (UA/DL/PO 등)에 대한 경쟁력 있는 운임과 서비스 지원

주요 미주 지역 외 캐나다(YYZ/YVR) 및 중남미 (MEX/GRU/BOG/SCL 외) 상품 서비스

4월 1일 부터 LAX (D7) / ORD (D1) 정규편을 사용한 block 차터 진행으로 경쟁력 있는 스페이스 제공

콘솔 및 BUP 스케줄

DEST	FLIGHT	ETD/ETA	FREQUENCY	ROUTE
JFK	OZ587	2230/0125+1 1545/1715 2230/0125+1	D2 D5 D7	DIRECT
	UA892	1650/1125	D46	SFO-EWR T/S (TRUCKING)
LAX	OZ284/OZ286 OZ282(CHTR)	1445/1210, 1530/1025 0850/0410	D123456 D7	DIRECT
	YP101	1330/0720	DAILY	DIRECT
	UA892	1650/1125	D46	SFO T/S (TRUCKING)
SFO	OZ212	2040/1510	DAILY	DIRECT
	UA892	1650/1125	D46	DIRECT
DFW	OZ242/OZ244	2300/0435+1	D1246	DIRECT
	DL158 DL026 DL170 DL196	0935/0825 1845/1810 1925/1650 2005/1335	DAILY	DTW T/S ATL T/S MSP T/S SEA T/S
ORD	OZ242/OZ244/OZ248	2300/0000+1	DAILY	DIRECT
	DL158 DL170	0935/0825 1925/1650	DAILY	DTW T/S MSP T/S
ATL	OZ248	2300/0535+1	D357	DIRECT
	DL158 DL026 DL170 DL196	0935/0825 1845/1810 1925/1650 2005/1335	DAILY	DTW T/S DIRECT MSP T/S

서울

DEST	FLT	ETD/ETA	FRQ	ROUTE	CUT-OFF TIME	실무자
LAX	OZ284/OZ286/OZ282	1445/1210, 1530/1025 0850/0410	D123456 D7	DIRECT	작업일 17시	안범준 대리 (070-5069-9441)
SFO	OZ212	2040 / 1510	DAILY	DIRECT		
ORD	OZ242/OZ244/OZ248	2300 / 0000+1	DAILY	DIRECT	작업일 17시	장희원 사원 (070-5096-9101)
ATL	OZ248	2300 / 0545+1	D357	DIRECT		
DFW	OZ242/OZ244	2300 / 0435+1	D1246	DIRECT		
JFK	OZ587	2230 / 0125 +1	D2	DIRECT	작업일 17시	서현주 사원 (070-5096-9342)
	OZ587	1545 / 1715	D5		전일 17시	
	OZ587	2230 / 0125+1	D7		작업일 17시	

메일: usa@maxlogis.com / 네이트온: maxkorea airexp@nate.com / TEL: 02-3144-2289

** 국적사 중심으로 한 노선 별 운임 인상 및 4월 상반기 운임 고공 진행 전망

- 중국 항공 수요의 증가에 따른 항공 운임의 가파른 인상 요인으로 한국 발 미주 행 운임 지속 상승세
- 3월 시장 진입 후 중국 현지 이커머스 화물 시장이 미주 스페이스 운영을 견인하면서 해외 port의 항공 운임의 가파른 상승세 영향으로 3월 마지막 주를 기반으로 국적사의 운임 인상을 단행
- LAX/ORD/JFK 등 주요 미주 노선의 스페이스 부족 현상이 상반기 까지 지속 전망되는 가운데, 차터 운항 편이 아닌 정규편의 BUP 약정 대리점의 운임은 4월 상반기 기준하여 추가 인상 전망
- 4월 4일 우정 EXTRA ORD 차터를 시작으로 LAX/ORD 우진의 KE 하프차터 그리고 4월 하반기 N8의 ATL 차터 운항까지 다양한 관계 항공사들의 활발한 4월 차터 공급 시장의 전개
- 중국 씨앤에어에 기반한 전자담배 및 이커머스 물동량 흐름에 따라, 4월 LAX/ORD 차터 시장의 연착륙 및 운임에 대한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한화큐셀의 2300T 추산 처리 물동량에 따라서 ATL를 포함한 관계 노선의 물량 흐름의 변수 내재

**미주 전 지역(서부/중동부) 화물 적체 심화

- 국적사를 포함하여 OAL 미주 관계 항공사들의 현지 Back-log 심화
- 운임 추가 인상 여지 내재 이외 연결 편 지연 등, IRR. 상황 발생 가능성 높아 충분한 리드타임 필요

유럽 (BSA/LUZ/GCR) 및 서남아시아/중앙아시아

유럽 주요 지역(LHR/FRA/VIE/MXP) 콘솔 및 BUP 프로그램 진행

OZ 스케줄 및 주요 OAL(QR/TK/LH/CV)을 통한 유럽 및 서남아시아를 포함한 이원 구간 지원

FRA/VIE에 대한 안정적 스페이스 및 경쟁력 있는 운임 지원 및 LHR/STN의 안정적인 스페이스 운영

중앙아시아 (ALA/TAS/IST) 지역에 대하여 OZ 및 OAL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서비스 지원

서울

콘솔 및 BUP 스케줄

DEST	FLIGHT		ETD/ETA	FREQUENCY	ROUTE
FRA	FRTR	OZ795/OZ775 OZ793	22:30-10:00+1 02:40-15:45/22:00-11:05+1	화 금 / 수 토 월 / 목	DIRECT
	PAX	OZ541	09:45-16:30	DAILY	DIRECT
LHR	FRTR	OZ793	02:40-22:00 / '22:00-22:00+1	월 / 목	STN T/S
	PAX	OZ521	12:20-18:50	DAILY	DIRECT
VIE	FRTR	OZ775/ OZ789/OZ795/OZ797	23:50-06:25+1/ 22:30/06:25+1 (12,19.APR(0025/0805))	수 토 / 목 / 화 금 / 일	DIRECT
CDG	PAX	OZ501	1045-1805	월 수 목 금 토 일	DIRECT
MXP	FRTR	OZ789 OZ797	22:30-10:05+1(12,19.APR (00:25-11:15)) 22:30-10:05+1	목 일	DIRECT
DEST	FLIGHT		ETD/ETA	FREQUENCY	ROUTE
외항사 T/S	QR	QR8983 QR8981	0145-0605	수 금 일 토	DOH T/S *T/TIME: 2~4DAYS
		LH	LH8385 LH8387	02:00-08:00 02:25-08:50	금 월
	TK	TK6545	04:50-11:35 10:50-16:05	금 일	IST T/S *T/TIME: 2~4DAYS
	CV, C8	CV7223 CV7155 CV7226	07:25-14:20 03:10-11:05 07:30-14:40	목 토 일	ICN-LUX *T/TIME: 2~4DAYS
		C8 8111 C8 7113 C8 7737	04:10-16:00 06:40-18:40 13:35-05:25+1	월 수 일	ICN-MXP *T/TIME: 2~4DAYS

DEST	FLT	ETD/ETA	FRQ	ROUTE	CUT-OFF TIME	실무자
LHR/STN	OZ793 (FRT)	0240 / 1100 2200 / 0630+1	D1 D4	DIRECT	토요일 15시 작업당일 17시	박주상 과장 (070-5096-9385) 장예원 대리 (070-5096-9340) 진호연 사원 (070-5096-0003)
FRA	OZ793 (FRT)	0240 / 1545 2200 / 1105 +1	D1 D4	DIRECT	전일 17시	
FRA/VIE	OZ795 (FRT)	2230 / 0625 +1 (VIE) 2230 / 1010 +1 (FRA)	D25	DIRECT	작업당일 17시	
	OZ775 (FRT)	2350 / 0745 +1 (VIE) 2315 / 1105 +1 (FRA)	D36	DIRECT	작업당일 17시	
MXP/VIE	OZ789/797 (FRT)	2230 / 0625 +1 (VIE) 2330 / 1005 +1 (MXP)	D47	DIRECT	작업당일 17시	

메일 : europa@maxlogis.com / 네이트온 : max_export1@nate.com / TEL : 02-3144-2289

** 주요 유럽 노선의 스페이스 부족에 따른 성장세의 유럽 시장

- 제한적인 홍해 사태 고착화 사태 이후, 유럽 스페이스 공급의 안정화에 이어 양극제 및 대기업 Auto parts 의 출현 급증으로 예상 밖의 back-log 및 직항을 포함한 T/S OAL 스페이스 조기 소진
- 중국 시장의 안정화에 따른 물량 증가로 LHR/AMS 행 전자담배 및 이커머스의 꾸준한 출현 및 VIE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화물의 선적 진행 여파로 운임 동반 상승 견인하는 3월에서 4월 시장 동향
- 운임 경쟁력 있는 OAL (CV/QR/TK 등)의 조기 스페이스 마감 및 수요를 감안한 항공사 별 운임 관리 치중

서울

** EY HS CODE 필수 기입 안내

- 2월 29일 부터 EY로 진행되는 화물에 대한 HS CODE 필수 기입
- HS CODE 누락으로 현지 통관 지연 등 화물 처리에 불이익 발생 가능으로 HS CODE 재확인 요

** CV/C8 EDI DATA 전송 방법

- 2024년 03월 25일 부로, CV/C8 진행 화물에 대한 FWB 전송 시, 화물 볼륨 값(CBM) 필수 기재 요
- CBM 누락 시, 매뉴얼 수정 변경 시, E-data Higher Fee 청구 가능성 내재로 주의 요망

- 예시 :
Ex)
RTD/1/P13/K680/CQ/W680
/NC/CONSOL
/2/ND//NDA
/3/NV/MC4.08
/4/NH/870899

** EY CMN 향 FWB 처리 시 확인 사항

- 모로코 현지 세관 규정에 따라 FWB 전송 시, 필히 OCI section에 CNEE TRADE REGISTER NUMBER 가 전송 되어야 함

- TRADE REGISTER NUMBER 누락 시 Penalty 등 선적 처리 발생 가능성 내재로 주의 요망

- 공문 사항 : In line with Morocco Customs Requirements, all terminating shipments in Morocco shall provide the "Consignee Trade Register Number" in the OCI section of FWB:

- Format for Public / Private limited company Consignees:

OCI/MA/CNE/T/TRADE REGISTER NUMBER 0XX0XXXX

- Format for Non-Public / Private limited company Consignees:

OCI/MA/CNE/T/00000000000000

Notes:

Trade Register Number should contain only digits (0=zero; x=any other number)

ii. If tendering a paper AWB then the information will appear in the Handling Information box

** ET EU 화물 선적 진행 시, 반드시 FHL DATA 전송 시, HAWB 당 HS CODE도 기재 및 전송 필

- ET로 진행되는 모든 선적 화물은 실 화물 품명 기재 필
- EU 지역, JED/RUH/DME 진행 시, CONSOL 표기 제한

** SV (사우디아라비아항공)

- 3월 부터 JED 직항 운항 중단 / ICN-RUH SV899 22:25-04:55+ D123 운항

서울

아시아(BSA/LUZ/GCR) 및 중일지역

주요 아시아 노선 (HAN/HKG/PVG) 콘솔 및 BUP 프로그램 운영

HKG (면세품/화장품 등)을 포함한 TPE 행 특송 화물에 대한 특가 및 스페이스 지원

OZ PVG 및 HKG BUP 프로그램 운영으로 경쟁력 있는 운임 및 서비스 제공

OZ 직항 이외 주요 OAL (SQ/LJ 등)에 기반하여 SQ 주요 운항 노선 및 LJ (TPE/BKK)에 대하여 다양한 노선 서비스 구축 확보

콘솔 및 BUP 스케줄

DEST	FLIGHT	ETD/ETA	FREQUENCY	ROUTE
PVG	OZ0987 OZ0947 OZ0361 OZ0365 OZ0367	화,목1550-1705/ 토,일0050-0205 월,금1140-1255/ 수0050-0205 월~금 0905-1005 월~금 1410-1510 월~금 2000-2105	DAILY	DIRECT
HKG	OZ745 OZ721	월~일 1950-2230 월~일 0900-1140	DAILY	DIRECT
	OZ967/OZ969	OZ967 화,목,일0840-1130/금2345-0235 OZ969화,금0025-0315/수0840-1130	화,수,목,금,일	DIRECT
	OZ951/OZ953	OZ951화,금2345-0215/수0130-0850 OZ953토2345-0705	화,수,금,토	HAN병합노선
HAN	OZ387 OZ389 OZ383 OZ933 OZ931 OZ951	수2345-0215/금,일2355-0250 화,금,일0020-0250 월,화0105-0325 OZ933화0800-1030/수2200-0030 OZ931금0015-0245 화,금,토2345-0215/수0130-0400	월,화,수,금,토,일	DIRECT
NRT	OZ102 OZ104 OZ106 OZ108 OZ194 OZ198	월,화,수,목,금,토,일 0900-1120 월,화,수,목,금,토,일 1210-1430 월,화,수,목,금,토,일 1545-1815 월,화,수,목,금,토,일 1830-2100 화 0400-0620 수,일 1535-1800/ 금 1335-1555	DAILY	DIRECT
TPE	OZ701 OZ703	월~일0750-1055 월~일1415-1550	DAILY	DIRECT
	LJ731	0750-0925	DAILY	DIRECT

서울

DEST	FLT	ETD/ETA	FRQ	ROUTE	CUT-OFF TIME	실무자
PVG	OZ947	1140/1255 0050/0205	D135	Direct	작업당일 18시	곽지연 사원 (070-5096-0004)
	OZ987	1150/1705 1540/1655	D24567	Direct	작업당일 18시	
HAN	OZ933	2200 / 0030 +1	D13	Direct	작업당일 17시	강준환 사원 (070-5096-9869)
	OZ387/951	2345 / 0225 +1	D234567	Direct	작업당일 15시	
HKG	OZ745	1950/ 2250	DAILY	Direct	작업당일 18시	김정은 대리 (070-5096-9384)
	OZ969/969	2345 / 0235 +1	D25	Direct	작업당일 18시	
	OZ951	2345 / 0215+1	D256	Direct	작업당일 18시	

** OZ 03월 중국 화물기 및 여객기 운항 안내

- PVG 화물기 운항 편 경우 운항 편수 동일 유지 및 일부 편 출/도착 지연 예상으로 STD 별도 확인 필요
- PVG 및 PEK 여객기 와이드 기재로 DAILY 1회 운항 계획

** NX 하계 스케줄 기준 스케줄 및 증편 공지

- 2024년 04월 01일부터 NX 항공 편 주 7항으로 증편 운항
- ICN-MFM NX825 ETD / ETA 0955 / 1300 - NX821 ETD / ETA 1415 / 1715 (DAILY / A321)

** TG (타이항공) 특정 노선에 대한 EMBARGO 안내

- 2024년 03월 24일 부터 잠정 04월 06일까지 EU, BOM,DAC,KHI 지역의 선적 진행 EMBARGO 적용
- 해당 관계 지역의 BACK-LOG 현상 심화 및 유기적인 화물 처리를 위한 Temporary Embargo 진행

** PO 중일 노선 하계 스케줄 공지

- S24 (31MAR2024 ~U.F.N) 인천 출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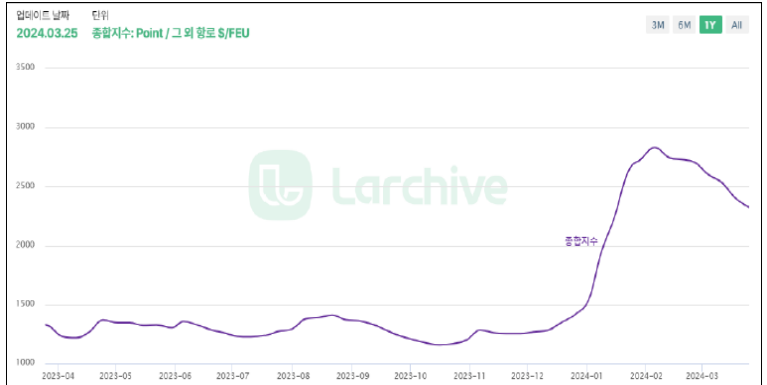
ASIA	HKG	FL No.	K4640		K4614		K4624		K4626		K4624		PO237		8747F
		STD/STA	01:40	04:30	01:40	4:40	01:30	4:30	1:30	4:30	01:30	4:30	01:35	04:30	
		FL No.	PO789		PO969		PO327		PO325						
		STD/STA	10:25	13:20	10:10	13:05	03:45	6:30	03:45	6:40					
	SZX	FL No.	PO751								PO934				8747F
		STD/STA	21:00	00:30+							23:00	02:30+			
	PVG	FL No.	PO9601		PO211		PO211		PO211		PO997		PO213		8777F
		STD/STA	16:50	18:05	01:15	02:30	01:15	02:30	01:15	02:30	01:15	02:30	04:40	05:55	
		FL No.			PO997		PO997				PO991				
		STD/STA			16:25	17:40	16:25	17:40			23:15	00:30+			
	NGO	FL No.	K4263		K4291		K4261		K4293		K4261				8777F
		STD/STA	22:00	00:01+	22:00	00:01+	22:00	00:01+	22:00	00:01+	23:50	01:50+			

부산

■ 해운동향 : 한국 컨테이너선 종합지수 (KOBIC Container Composite Index), 12WK

✓ 종합지수 약 하락, 미주 동/서안, 유럽 중동, 남미 소폭 하락, 동남아권 상승 추세.

단위: 종합지수(Point), 항로별(\$/FEU)			
항로	12주차(WK) (2024-03-25)	11주차(WK) (2024-03-18)	전주대비 (증감율)
종합지수	2,326	2,402	▼ 3.3%
원양 (Main-Lane)	미주서안	3,845	3,939 ▼ 2.4%
	미주동안	5,131	5,264 ▼ 2.6%
	북유럽	3,526	3,752 ▼ 6.4%
	지중해	4,115	4,417 ▼ 7.3%
중장거리 (Non-Main Lane)	중동	2,870	2,922 ▼ 1.8%
	호주	1,866	1,950 ▼ 4.5%
	남미동안	2,941	2,942 -
	남미서안	2,369	2,503 ▼ 5.7%
	남아공	2,130	2,168 ▼ 1.8%
인트라 아시아 (Intra-Asia)	서아프리카	2,156	2,147 ▲ 0.4%
	중국	39	40 ▼ 2.6%
	일본	184	184 -
동남아시아	436	420 ▲ 3.7%	



- 13개의 노선 중 2개 노선은 전주대비 상승 ▲, 9개 노선은 전주대비 하락 ▼ 2개 노선은 보합세
- (종합) 24년 3월 25일 종합지수는 전주대비 3.3% 하락한 2,326p로 집계됨.
- (미주) 서안은 전주대비 2.4% 하락한 3,845달러를 기록함. 동안은 전주대비 2.6% 하락한 5,131달러를 기록함.
- (북유럽/지중해) 북유럽 운임은 전주대비 6.4% 하락하여 3,526달러로 집계됨. 지중해는 전주대비 7.3% 하락한 4,115달러로 집계됨.
- (남미) 남미동안 2,941달러로 전주대비 보합세를 보임. 남미서안 2,369달러로 전주대비 5.7% 하락세를 보임
- (근해항로) 중국은 39달러로 전주대비 2.6% 하락함. 일본은 184달러로 전주대비 보합세를 보임. 동남아는 전주대비 436달러로 전주대비 3.7% 상승함.

2) 경제동향: 중국의 수출 물량 공세로 무역갈등 재점화!

- 전 세계적으로 중국산 자동차, 컴퓨터, 반도체칩, 전자제품 등 중국산 제품이 범람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의 수출 물량 공세로 미국·유럽과 중국 사이의 무역 갈등이 재점화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 현재 중국은 부동산 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로 인해 내수가 공장 생산 물량을 감당하지 못해 공급 과잉이 발생하면서 제품 가격이 하락하고 있음.
- 현재 중국은 소비자 지출이 GDP의 40%에 불과할 정도로 내수는 부진한데 생산능력은 그 어느때보다 견조해 생산잉여분을 해외 수출로 소진시켜야 하는 상황임.
- 실제로 지난 15일 미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2월 기준, 미국에 수입되는 중국산 제품은 1년 전 대비 3.1% 하락한 가격에 들어오고 있음.
- 중국의 저가 수출품이 해외 시장에 대거 유입되면 글로벌 인플레이션 완화에는 도움이 될 것임.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해 미국의 인플레이션 하락에도 중국산 저가 제품이 다소간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됨.
- 값싼 중국산 수입품의 범람은 미국 제조업체 매출에 타격을 입힐 것이며, 올해 선거를 앞두고 제조업 일자리 부양에 나선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있음.

부산

- 2019년 말 이후 중국의 제조 생산은 약 25% 증가했고, 미국의 공장 생산은 별다른 변동 없이, 2007년 고점 대비 7% 하회하는 수준을 유지하는 데 그쳤음.
- 그 결과, 미-중 양국간 무역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었음. 현재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중국 관세 부과 조치 시행 이전보다 늘어나 역대 최고치에 육박하고 있음.
- 또한 중국의 제조업 무역 흑자 규모는 지난 1980년대 말 세계 경제를 호령하던 일본의 당시 제조업 무역 흑자 규모의 2배에 달하는 수준임.
- 이처럼 중국의 제조업 지배력이 확대되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음. 중국은 최근 자동차 수출 부문에서 전통 자동차 강국인 독일을 제쳤음.
- 현재 중국의 자동차 생산 능력은 연간 4천만 대 수준으로 내수 대비 1,500만 대가량 초과 생산되고 있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음.
- 실제로 지난해 중국의 자동차 수출량은 지난 2020년 대비 5배가량 증가한 5백만 대를 기록했고, 향후 몇 년 후면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중국은 이미 멕시코의 최대 자동차 수입국으로 등극했으며, 전기차 수출에서도 약진 중임.
- 15만 달러대 저가 전기차를 판매하는 중국 전기차업체 비야디(BYD)는 지난해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최대 전기차 생산업체로 올라섰음.
- 이러한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올해 초, 새로운 무역 장벽을 도입하지 않으면 중국 전기차업체들이 경쟁업체들을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했음.

1) 지점소식

4월4일 어린이날
4월5일 청명절

2) 물류동향

지난해 중국 본토 전자상거래 상품이 항공수출의 70%를 차지해 처음으로 전자상거래 화물이 일반 항공화물을 추월했으며, 올해 3월부터 중국 본토 공장이 재가동되고 전자상거래 물량이 다시 나와 항공운임이 주 단위로 상승세다.

중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은 30억 개 이상의 소포를 해외로 반출했고, 미국이 제일 큰 시장, 현재 미·중 항공편은 운항 재개율이 낮아 대만 & 홍콩 항공사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다.

AI 서버, AI PC, 게임기 등의 물량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전자상거래가 올해 공수 성장의 주역이 될 것으로"

중국 전자상거래 상품의 수출 비중은 이미 70%까지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설 연휴에도 쉬지 않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시카고·캐나다로 가는 화물 전세기를 여러 대 운항되고 전자 상거래 화물 전세기 수요가 많아, 해외 전세기 가격은 3월에 이미 60만 달러를 넘어섰다.

CMA, COSCO, ONE을 비롯해 대만 EMC, YML등 상위 10개 선사에서 4월 1일 아시아 북미 노선의 GRI(종합할증료)를 20피트당 1000달러, 2000달러씩 추가해 노선별로 20~50%씩 인상하기로 했다.

극동~미서부 FEU(40피트 컨테이너)당 3,776달러, 4월 1일부터 GRI 2,000달러, 1000달러, 27% 인상, 극동~미동 FEU(40피트 캐비닛) 5,252달러, GRI 2,000달러, 38% 인상, 1,000달러만 추가하더라도 2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아시아-북미 노선에 대한 할증요금으로 1000달러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해운사는 일ONE와 YML, 아시아-북미 GRI에 2000달러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업체로는 세계 3위의 해운사인 CMA CGM을 비롯해 국내 최대 해운사인 EMC, COSCO, 한국의 HMM, Hapag-Loyd 등이 있다.

1) 지점소식

4월 1일 부활절
4월4일 청명절

홍콩발 하노이/호치민 LCL Consol 진행

2) 물류동향

- **Hong Kong Air Cargo Middle East 지역 전자상거래 항공 화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신규 노선 개시**

-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신규 노선은 이스탄불, 두바이에 이어 중동지역 세 번째 노선이며 동 노선은 홍콩 - 리야드간 주 2회 운항하는 화물 전용 노선.

Route	Flight number	Day	Time
Hong Kong – Riyadh	RH386	1	09:40 – 17:20
Riyadh – Hong Kong	RH387	1	19:20 – 08:30+1
Hong Kong – Riyadh	RH386	7	13:50 – 21:30
Riyadh – Hong Kong	RH387	7	23:30 – 12:40+1

- **IATA certifies Cathay Cargo Terminal & Hactl for IATA Environmental Assessment (IEnvA) process.**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IATA 환경평가(IEnvA) 프로세스를 통해 홍콩 국제공항(HKIA)의 캐세이퍼시픽 화물 터미널과 홍콩 항공 화물 터미널 (Hactl)를 인증했습니다.

-캐세이퍼시픽 화물 터미널과 홍콩 항공 화물 터미널 (Hactl)은 IATA 환경평가(IEnvA) 인증을 획득한 북아시아 최초의 화물터미널입니다.

증경

1) 지점소식

- 4월4일~6일 청명절
- 안정적인 반도체 및 전자제품 수입/수출 및 국내운송 업무제공
- 다양한 Route 개발과 항공사 전략적 계획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항공운송 서비스 제공
- 충칭지점 주요 핸들링 지역
CKG/CTU/WUH/CSX/CGO/XIY

2) 물류동향

- 장강 바지선 2월21일 부터 45일간 결항, 삼협 (三峡) 댐 점검수리 진행
- 충칭 발 미라노 직항 스케줄 개통, 중국 여행비자 면제 정책으로 해외 유람객 증가
- 충칭발 3월 항공스케줄

YEAR /MONTH	DEPT	항공사	FLT TYPE		DIRECT / T.S	Route		MON	TUE	WED	THU	FRI	SAT	
			(P/C)	기종		출발지	도착지	FLT. NO.	FLT. NO.	FLT. NO.	FLT. NO.	FLT. NO.	FLT. NO.	
202404	CKG	CA439	P	B738	D	CKG	ICN	CA439	CA439	CA439	CA439	CA439	CA439	
	CKG	KJ2626	C	B737	D	CKG	ICN			KJ2626				
	CTU	KJ212	C	B737	D	CTU	ICN			KJ212	KJ212	KJ212	KJ212	
	CGO	KJ252	C	B737	D	CGO	ICN		KJ252				KJ252	
	XIY	KE812	P	333	D	XIY	ICN	KE812	KE812	KE812	KE812	KE812	KE812	KE812
		KE0328	C	77X							KE0328		KE0328	
	XIY	CF201	C	B737	D	XIY	ICN		CF201	CF201	CF201	CF201		
	CKG	CI5998	C	747F	T	CKG	TPE			CI5998			CI5998	
	TPE	CI0160	P	330	T	TPE	ICN	CI0160	CI0160	CI0160	CI0160	CI0160	CI0160	CI0160
		CI0162	P	330				CI0162	CI0162	CI0162	CI0162	CI0162	CI0162	
	CKG	BR0678	C	B77X	T	CKG	TPE				BR0678			BR0678
		BR0160	P	781				BR0160	BR0160	BR0160	BR0160	BR0160	BR0160	
		BR0170	P	333				BR0170	BR0170	BR0170	BR0170	BR0170	BR0170	
	CKG	CX3261	C	74Y	T	CKG	HKG			CX3261				
		CX3265	C	74Y					CX3265			CX3265		
		CX053	C	74N										
		CX945	C	32Q								CX945		
CX929		P	32Q							CX929			CX929	
	CX416	P	359				CX416	CX416	CX416	CX416	CX416	CX416	CX416	

1) 지점소식

4월4일~6일 청명절

2) 물류동향

- CARRIER: 아시아나(OZ) TSN-ICN 구간 2024년4월 매주마다 스케줄은 4회입니다.
TUE/FRI: 767-300 화물기(ETD/ETA: 1530/1710)
WED/SAT: 747-400 화물기(ETD/ETA: WED-1910/2050, SAT-1555/1735)
**CANCELLED 스케줄 없음
- 천진발 미국/유럽항 항공 2ND 스케줄 SPACE TIGHT 상황으로 인해 운임도 많이 인상되고 있음
- 천진발 태국/베트남항 해상 SPACE는 계속 TIGHT 상황이고 해상 운임도 인상되고 있음
- XINGANG에서 출발 해상 스케줄은 계속 DELAY 상황 발생되고 있고 보통 1~2 DAYS DELAY 예상된다.

하노이

1) 지점소식

- 항공 계약사 7C 및 OZ 직계약 운영 중
7C 12월 14일부터 기존 데일리 1대화물기에서 2호기 투입.
- 중국 - 베트남 국경 트럭킹 서비스 관련 타 물류사와 협력강화
- 중/장비 및 반도체 관련 장비 수입 통관 및 도비 작업 특화 강화.

2) 물류동향

- 국적항공사 KE/OZ 의 하노이발 미주/유럽항 및 제3지구위주로 집하를 집중하여 하노이 인천구간은 여전히 스페이스가 타이트한 상황.
- 중국 향 화물 증가(애플 / 반도체 관련 등등) 대폭증가 추세.
- 국적항공사 스페이스 부족으로 인한 LCC 스페이스 또한 부족한 상황 운임은 계속 상승 추세.
- 전자상거래 화물 및 특송화물의 급격한 증가도 현재 항공 스페이스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으로 판단됨.
- 이런이유로 2분기에도 큰 변동상황이 없이 1분기와 동일한선에서 운임적용 및 스페이스 적용 될것으로 판단됨.
- 해상 스페이스 또한 중국향 화물 및 미주향 화물 급증세로 인한 스페이스 부족 및 운임 지속적인 상승예상

- 3) 하노이발(노이바이공항) 인천착 4월 스케줄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DAY	FRIDAY	SATURDAY	SUNDAY
OZ0734 (P)	23.50 - 5.45	23.50 - 5.45	23.50 - 5.45	23.50 - 5.45	23.50 - 5.45	23.50 - 5.45	23.50 - 5.45
OZ (F)	OZ0388 / 03:55 - 10:10	OZ0934 / 12:00 - 21:15 OZ0384 / 04:00-18:35	OZ0390 / 03:00 - 09:15 OZ0952 / 06:00 - 15:20	OZ0934 / 01:45 - 10:30 OZ0388 / 03:45 - 10:00	OZ0390 / 04:20 - 10:15 OZ0932 / 04:15 - 13:30	OZ0388 / 03:45 - 10:00 OZ0952 / 04:15 - 13:35	OZ0390 / 04:20 - 10:35
OZ0730(F)	13:30 - 19:35	13:30 - 19:35	13:30 - 19:35	13:30 - 19:35	13:30 - 19:35	13:30 - 19:35	13:30 - 19:35
VN414 (P)	23.35 - 5.50	23.35 - 5.50	23.35 - 5.50	23.35 - 5.50	23.35 - 5.50	23.35 - 5.50	23.35 - 5.50
VN416 (F)	10.45 - 16.30	10.45 - 16.30	10.45 - 16.30	10.45 - 16.30	10.45 - 16.30	10.45 - 16.30	10.45 - 16.30
KE362 (F)	4.20 - 10.15	4.20 - 10.15	4.20 - 10.15	4.20 - 10.15	4.20 - 10.15	4.20 - 10.15	4.20 - 10.15
KE456 (P)	23.00 - 4.55	23.00 - 4.55	23.00 - 4.55	23.00 - 4.55	23.00 - 4.55	23.00 - 4.55	23.00 - 4.55
7C9206 (F)		3.55 - 10.25	3.55 - 10.25	3.55 - 10.25	3.55 - 10.25	3.55 - 10.25	3.55 - 10.25
7C9408 (F)		5.10 - 11.45	5.10 - 11.45	5.10 - 11.45	5.10 - 11.45	5.10 - 11.45	5.10 - 11.45

1) 지점소식

- 4월 18일 홍왕 기념일(Hung Kings Commemoration Day)
- 4월 30일 통일의 날(Victory Day)
- 5월 1일 국제 노동절(International Labor Day)

2) 물류동향

- ❖ 롱탄(동나이성)국제공항, 2활주로 추가건설 추진 - 1단계 사업비 1.6억달러 남아
 - 길이 4000m 1활주로, 내년 통일절 완공 전망
 - 총 사업비 133.7억 달러 규모로 초대형 국책사업이자 베트남 최대 허브공항
- ❖ 캐나다, 베트남산 강선(鋼線) 반덤핑조사 착수 - 2년만에 수출 4배 급증
 - 2020년 수출 1000만 달러 → 2022년 4000만 달러
 - 북미시장 진출 관문, 잠재시장 CPTPP 발효 후 수출 크게 증가
- ❖ 베트남, 현금없는결제 63% 이상 급증
- ❖ 베트남, 2월 산업생산지수 전월대비 18%하락 - 뗏(Tet) 연휴여파
- ❖ CMG제약, 베트남 H&B 시장진출 - 올해 400만달러 수출예고
- ❖ LG이노텍, 해외법인 매출 25%상승 - 베트남이 상승 이끌어
- ❖ 금융투자협회, 베트남 증권위원회와 업무협약 - 투자진출 지원
- ❖ 호주-베트남, '포괄적전략동반자'로 관계격상 - "핵심광물 협력"
- ❖ BBQ 베트남 호안끼엠에 신규매장오픈 - 대표관광지 입성성과
- ❖ DN솔루션즈, 베트남 법인 설립 - 동남아시아시장 공략강화

❖ 경제 전반에서 낙관적 경기회복 조짐

- **(생산)** 1월 산업 생산은 가공제조업 생산 확대에 힘입어 전년 대비 18.3% 증가. 같은 기간 제조업 PMI는 50.3p(전월 대비 +1.4p)로 생산 회복세를 반영하여 8개월 만에 기준치(50p) 상회
- **(소비)** 1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3.4% 증가. 소매 판매는 뗏(Tet) 맞이 상품 소비 및 관광 수요 증가로 8.1% 상승
- **(투자)** 1월 20일 누계 기준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전년 대비 40.2% 증가한 236억 달러 기록. 전년도 성과에 힘입어 24년도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 정책은 계속될 전망

호치민

❖ 경제 지표

분야 및 지표		2022	2023							2024	
		연간	7	8	9	10	11	12	연간	1	2
실질 GDP(전년대비, %)		8.0	5.3			6.7			5.1	-	-
생산	산업생산 (전년대비, %)	7.8	3.7	2.6	5.1	4.1	5.8	5.8	1.5	18.3	-
소비	소매 판매 (전년대비, %)	19.8	7.1	7.6	7.5	7.0	10.1	9.3	9.6	8.1	-
투자	FDI 유입액 (누계, 전년대비, %)	△11.0	4.5	8.2	7.7	14.7	14.8	32.1	32.1	40.2	-
무역	수출 (전년대비, %)	7.1	△3.5	△7.6	4.6	5.9	6.7	13.1	4.4	42	-
	수입 (전년대비, %)	8.6	△9.9	△8.3	2.6	5.2	5.1	12.3	8.9	33.3	-
한국의 대비 무역	수출 (전년대비, %)	7.5	△15.4	4.5	3.3	△2.6	5.7	△2.6	△12.3	11.2	4.9*
	수입 (전년대비, %)	11.5	2.2	△13.1	△1.1	7.3	2.4	12.7	△2.9	10.1	3.6*

· 자료원: 베트남 통계청/관세청 (*는 잠정/전망치), 한-베 무역은 산업통상자원부/KITA

❖ 항공

- 항공 운임 지속 상승 → 스페이스 부족 (수요대비 항공 물량 폭증)
- 여행객들 증가 = 수화물 폭증, 항공화물 Off-load & Partial률 증가
- 대기업 화물, 이커머스 화물 등 대용량 화물 사전 스페이스 확보. 국적기의 경우, 미주항 화물 포커스

❖ 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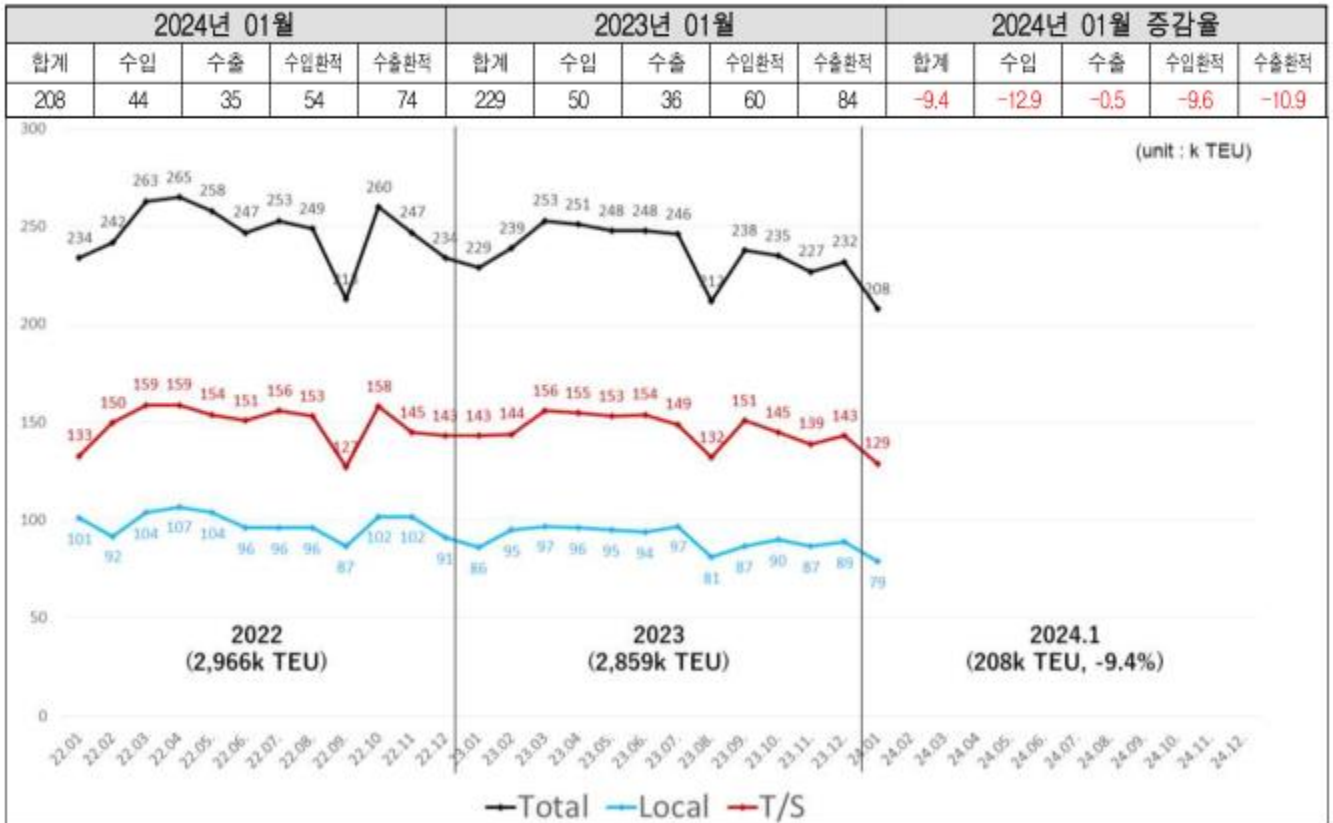
- 화물량 증가 → 운임 및 부가비용 상승
- 월 단위에서 2주 단위로 운임 오퍼

일본

1) 물류 동향

□ (부산-일본 물동량) 208천TEU 처리 (9.4% ↓)
 * 수출입 79천TEU (7.7% ↓) / 환적 129천TEU (10.4% ↓)

단위 : 천TEU



□(부산-일본 항만별 물동량)
 1위 도쿄, 2위 하카타, 3위 오사카, 4위 요코하마, 5위 나고야

지역	물동량 (TEU)			증가율 (%)		
	합계	수출입	환적	합계	수출입	환적
TOKYO	21,511	11,537	9,974	-21.6%	-13.4%	-29.3%
HAKATA/FUKUOKA	17,865	5,803	12,062	-15.7%	-19.3%	-13.8%
OSAKA	17,674	7,608	10,066	0.2%	0.5%	-0.1%
YOKOHAMA	17,532	7,279	10,253	-10.7%	-14.9%	-7.5%
NAGOYA, AICHI	15,584	6,224	9,360	-5.5%	-1.3%	-8.1%

◎ONE재팬, "2024년 문제"에 대응한 화주에게 내항선 이용 새로운 서비스 제안 검토

○ '2024년 문제' 대응을 위해 ONE재팬이 올 봄 내항선을 이용한 새로운 서비스 제안 검토 중

- ✓ 통상 CY 인도 수입화물의 경우, 그 이후의 운송수배는 화주가 하지만, 2024년 문제로 드레지 수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ONE재팬이 내항선을 이용해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 모드의 선택지를 제안하는 것임 화주를 대신해 회사가 내항선을 이용,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 모드의 선택을 제안하는 것임
- ✓ 조만간 게이힌항에서 센다이항으로 시범운송을 실시할 예정이며,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전국으로서 서비스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새로운 서비스의 특징은 계약형태를 변경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다는 점임

- ✓ ONE재팬 무라오 상무에 따르면 "예를들어, 게이힌항에서 실은 화물을 센다이항까지 운송하는 것은 지금도 하고 있으나, 수입의 경우 CIF(운임-보험료 포함) 화물이 많아 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서 상당한 수고와 시간이 소요되는데
- ✓ 동 계약형태를 바꾸지 않고, ONE가 내항선을 준비해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것이 새로운 제안이며, 평소 친분이 있는 내항선사의 서비스를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논의를 진행, 작년 12월경부터 구상을 내놓았다고 밝힘
- ✓ 화주는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트럭을 준비할 필요가 없고, 내항선으로 모달시프트에 의한 CO2 저감에도 기여하며, 장거리의 경우, 트럭운송 대비 비용이점도 있다고 함

○ ONE는 시범실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ONE로 해상운송된 수입화물을 게이힌항에서 하역, 이후 이모토상운의 내항선에 환적하여 센다이 시오가마항까지 운송하는 루트로 진행됨

- ✓ 이번 시범실시를 통해 워크플로우 확인 작업을 진행, 공 '컨 회송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하며, 워크플로우만 만들면 전국 어디에서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침

○ 새로운 서비스는 ONE 모선이 기항하는 주요항만이 대상임

- ✓ ONE 재팬은 '2024년 문제'로 왕복 500km 이상 장거리 수송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을 바탕으로 홋카이도, 센다이 등 동북, 시코쿠, 규슈 등에서의 수요를 예상하고 있음
- ✓ 또한 자사모선 미기항 지방항 포함, 전국에서 서비스 강화방침을 세우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내항선사와의 연계를 강화, '23년에는 서일본 규슈항로에서 새롭게 8개항을 커버했음

☉선사 CK LINE JAPAN – AI CHAT 맥스 사내 교육

- ✓ 2023.01 NEW WEBSERVICE 운영 & 2023.02 AI CHAT개설 관련한 AI CHAT개설 안내 및 사용법 교육
- ✓ 2024.03.06 맥스 재팬 사무실(천경해운 재팬 & 맥스 재팬)



1) 물류 동향

1) 홍해 후티반군 공격 줄었지만...해운사 우회 여전

홍해에서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의 민간 선박 공격이 다국적 함대의 공습 이후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선박들이 홍해를 우회해 운항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2) 유럽행 해상운임 4배로 폭증...탄소배출도 악화

홍해 사태로 물가 인상 압박이 커지면서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나왔음. 해상 운송은 전 세계 화물 약 80%를 담당하는 국제 무역 중추로서, 이 중 수에즈운하는 해상 물동량의 12~15%를 차지함

3) 예멘과 맞닿은 아덴만행 선박도 줄었음

아덴만에 입항한 선박 수는 지난해 12월 상반기 대비 63% 감소했음

1월 동안 희망봉 경유 선박은 일 평균 70척을 기록, 11월 평균 49척 대비 43% 늘었음

4) 공장가동 중단 등 물류 지연 사례 속출

운송 지연에 따라 전 세계에서는 차츰 공급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

스웨덴 자동차 제조업체인 볼보는 기어박스 배송이 지연되면서, 지난달 12일부터 3일간 벨기에 공장 생산을 중단했음

5) 선사들 할증료·보험료 증액 가속페달

현재 각 선사별로 할증료와 보험료를 증액하고 있어 물류 비용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전망, 또한 UNCTAD는 지금처럼 희망봉 우회가 계속되면 환경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음

선박 운항 거리가 늘어나는 데다 이를 만회하려고 가속 운행을 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한다는 설명

독 일

2) 경제 동향

1) EU, '러 제재 회피' 中본토 기업 첫 제재 추진

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도왔다는 이유로 중국 본토를 비롯한 제3국 기업에 대한 신규 제재를 논의 중. 제13차 제재안 초안에 중국 본토에 있는 기업 3~4곳이 포함됐음. 대상 기업은 러시아가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제품을 유럽에서 우회 수입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2) 휘청이는 독일 경제에...도미노처럼 쓰러지는 동유럽

독일 경제의 부진이 유럽연합(EU) 소속 동유럽 국가들을 강타하면서 올해 이들 국가가 경제회복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함

동유럽 내 4대 경제 대국 가운데 0.5% 성장한 불가리아를 제외한 이들 3국의 이 같은 부진은 동유럽이 독일 경제와 얼마나 강하게 묶여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지적했음

이들 국가는 이처럼 해외 수요 약세가 생산의 걸림돌이 되자 국내 소비에 기대를 걸고 있음 독일 경제 둔화가 겹치면서 부진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음

3) 미국 등 견제에도...독일의 대중 직접투자는 사상 최대 기록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대중 견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중국에 대한 투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독일의 지난해 대중 직접 투자는 전년 대비 4.3% 증가한 119억유로(약 17조460억원)를 기록,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음

이는 유럽 경기 침체와 맞물려 독일의 해외투자 총규모가 급감한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됨

4) EU 집행위, 무역협정 발효 시 EU 농식품 수출 수입액 유로 증가 전망

EU 집행위 공동연구센터(JRC)는 현재 EU가 추진 중인 일련의 무역협정 발효 시 EU 농식품 수출이 31억~44억 유로 증가하는 반면, 일부 민감 섹터의 경쟁 상황은 악화할 것으로 전망

최근 폴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루마니아 및 슬로바키아 등에서 우크라이나 농산품과 남미 쇠고기 수입에 반발한 농민들의 수입 농산품을 압수 및 폐기 등 시위가 발생

농업계는 EU의 높은 환경 기준이 생산 비용 상승과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불공정 경쟁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시장 보호를 요구

향후 보호주의적 농업 정책을 배제하고 자유무역을 확대한다는 집행위의 정책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

1) 지점소식

- 태국 지점 휴일 안내
- 04/08 차크리 왕조 기념일
- 04/13 - 04/16 송크란 휴일

2) 물류 동향

- 과일 수출에 힘쓰는 태국



지금까지 태국은 태국의 쌀 홍보 및 수출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2024년 독일에서 열린 국제 유기농 농산물 전시회에 참가하여 쌀뿐만 아니라 태국 과일에도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

1년 주문량이 약 7,900만 바트 이상으로 예상되며, 해당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신선 과일, 가공품 및 기타 농산물의 비즈니스 매칭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전 세계 19개국의 주요 수출업자와 수입업자를 초청하여 과일 시즌이 되기 전, 좋은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협상을 하였다. 해당 프로젝트는 외국 수입자와 태국 수출업자 양쪽 모두 큰 관심을 받게 되었다. 작년 과일 수출 시장은 3000만 바트였으며, 올해는 3억 1200만 바트 상당의 427만 톤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두리안이 수출 과일의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태국 정부의 과일 수출 프로젝트 추진력을 보아, 앞으로도 태국 과일 수출 시장은 전망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태국 지점은 태국의 망고 시즌 중 태국 - 한국 수출에 스페이스 확보 및 좋은 운임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문제 사항 발생 시 즉각 대응을 위해 항상 공항 내 담당자와 컨택하고 업데이트 받고 있다.

태국의 과일 수출량이 더 많아지고 물동량이 증가하더라도,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문제 없이 핸들링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 물류 동향

• 홍해 사태 후 해상 운임 안정화.

태국 왕립 해군은 선박 운임이 인하 했다고 밝혔다. 홍해 사태 발발 이후 급격한 해상 운임 인상 후 다시 2-3배까지 떨어졌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23년 말에는 홍해 사태가 해상 운임, 항해 기간, 스페이스 확보에까지 영향을 끼쳤다. 특히 유럽 항 선박의 해상 운임은 일전 가격보다 4-5배까지 올랐으며, 만약 1,000달러였다면 4,000-5,000달러 정도까지 해상 운임이 올랐다는 것이다.

현재는 하루 화물선 100-120척 정도가 홍해를 통과하는 화물선이 있으며, 이로 인해 해상 운임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 이는 해상 운임 증가 정점 시기를 지났다고 볼 수 있으며, 사태가 더 완화된다면 해상 운임 또한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여전히 분쟁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다시 분쟁이 심화될 지 모른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항상 선사 측과 확인하고, 정세를 살피는 등 홍해 사태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맥스탑 태국에서는 운임 인하에 대해 지속적인 선사와 운임 협의하여 경쟁력 있는 운임 확보에 힘쓰고 있다.

• 세계무역기구(WTO)의 농업 협정에 따른 실크 수입 할당 증명서 발급



지금까지는 실크 수입 시, 수입량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수입을 허용하였다. 하지만 이로 인해 태국은 실크 수입량이 크게 늘었고, 결과적으로 태국의 농산물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었다.

이를 막기 위해 앞으로 실크 수입 시 WTO 농업 협정에 따라 각자 할당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할 권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증명서발급을 받아야 한다. 2024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이후부터는 수입량을 구제하는 규제가 생겨 실크 수입량이 이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 물류 동향

• 태국 항공 물류의 성장세

코로나 이후 태국의 물류 이동은 경제 활성화에 따라 점차 회복되고 있다. 하지만, 운임은 비즈니스 회복 부담과 유류 가격 상승 추세에 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고유가로 인한 고객들의 비용 부담 증가, 아시아 지역 화물 운송의 커버리지 강화 등으로 인해 운임이 높게 유지되고 있기에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 항공 물류의 지속적인 성장세에 태국은 태국을 세계 항공 허브 (Aviation Hub)를 목표로 물류 허브(Logistic Hub)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태국 정부는 태국을 세계 5대 Hub중 하나로 추진하기 위해 모든 분야의 인프라 투자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특히, 수완나품 공항(BKK)을 세계 5대 공항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인프라에 투자하여 개선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